

# 창업역량과 사회적 영향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

##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Social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한미경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경영학박사

Mie Kyoung Hahn(miek@naver.com)

### 요약

직업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성인들은 고용, 비노동 또는 창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력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의 진로 선택을 목적으로 성인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창업역량, 사회적지지, 성공 창업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역량 중 직무역량과 자금조달능력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창업역량과 사회적지지, 창업 역할모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는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역량→창업멘토링→창업의지, 자금조달역량→창업멘토링→창업의지, 창업성공 롤모델→창업 멘토링→ 창업의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 중심어 : | 창업멘토링 | 창업역량 | 사회적지지 | 창업의지 |

### Abstract

The changing nature of work suggests that people may face the prospect of a career choice including of paid employment, non-work and self-employment, of which the latter implies scope for entrepreneurial activ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view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role model as an affect to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adult with the purpose of a second career choice. Also,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 is verified. As research methodology, a research model and a hypothesis were set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he research hypothesis was proven through a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SPSS 24.0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job competency and funding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Second, entrepreneurial role model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role model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mentor had significant job competency→mentor→entrepreneurship intention, funding capability→mentor→entrepreneurship intention, entrepreneurial role→mentor→entrepreneurship intention.

■ keyword : | Entrepreneurial Mentoring | Entrepreneurial Competency | Social Support | Entrepreneurial Intentions |

접수일자 : 2022년 07월 26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24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9월 07일

교신저자 : 한미경, e-mail : miek@naver.com

## I. 서론

기업가정신은 국가의 경제문제와 고용문제, 혁신의 개발 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나 자질이 창업가로서의 경력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경력 선택을 위한 창업에 관한 관심은 개인의 선호도와 상황적 요인 모두와 관련이 있다. 이는 기업가 경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Podolny(2001)은 사회적 관계가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전달하는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3], 또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규범을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4][5]. 이는 창업가로서의 경력 선택에 대한 개인의 결정은 자신의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업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심지어 유사한 전환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다[6][7].

잠재적 창업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8][9], 학교 네트워크[10][11] 및 동료[12]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경력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가족과 동료를 통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노출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발견했다[8][10][12].

관련 연구들로는 창업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됐다. 창업가로서의 경력 선택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사회적 영향력은 여러 사회적 자원의 원천이 개인의 경력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변수들과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였다[13]. 사회적 영향력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그 영향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1].

한편, 사회적 접근법에서 창업의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기업가적 학습이 있다[14]. 기업가적 학습은 대표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이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기업가적 학습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 성인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기업가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에게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사회화의 형태로 창업 멘토링이 있다. 멘토링은 지

금까지 조직의 적응과 자기 계발 등 개인의 성장을 돕는 지원 형태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인의 기업가 경력개발을 위한 창업 멘토링은 비즈니스 컨설팅이며 코칭으로써, 성공적인 창업 또는 초기 사업의 안정화와 성공을 목표로 하며, 창업멘토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등에 전반적인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실패율을 낮추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창업 멘토링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창업 멘토링에 대한 기존 연구[15-17]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는 개별적인 멘토링 보다는 수업 방식을 통한 멘토링의 효과와 멘토링 만족도를 측정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멘토링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창업역량과 사회화 요소를 중심으로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성인의 경력 선택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배경

### 1. 창업역량

역량의 대표적인 개념적인 정의로서 Spencer & Spencer(1993)는 일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의 특성으로 평균 성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8]. Armstrong(2006)은 역량에 대해 지식, 기술, 사고방식이 각각 또는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될 때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 특성이라고 하였다[19]. 창업가의 역량에 대해서 Baum & Smith(2001)는 직무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20]. 김상수(2018)는 창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자의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21]. 김대업, 성장수(2013)는 창업역량은 개인의 배경뿐 아니라 직장 및 교육을 통해 획득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22]. Jovanovic(1982)은 개인들은 경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적자본의 중요

한 부분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23]. Georgellis & Wall(2005), Poschke(2013)은 개인의 경험이 창업의 경력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4][25]. Koller(1988)도 창업가로서 경력 선택에는 창업 이전의 직무경험과 사회적 관계 등에서 창업이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26].

창업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27][28]. 한편, 창업실행을 위한 재무적 상황의 예측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9][30]. 특히, 창업 초기에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이 더 많을수록 불리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완충작용 효과가 높아서, 적은 자원을 보유한 기업보다 수익성, 성장성,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31].

자금조달역량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기업가의 역량에 관한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32-34]. 관련 연구로 박성호(2017)는 창업환경에서 자금조달 자신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5]. 윤희현(2019)은 창업자금 준비가 창업역량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36]. 한미경(2021)은 잠재적 창업가의 자금 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 2.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

기업가의 사회화 모델(Starr & Fondas, 1992)에 따르면 창업을 위한 선택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영향력을 주장하면서 가족 및 동료와 같은 사회적지지자 정보,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14], Levesque(2014)은 사회적지지는 도구적 지원, 평가/정보 지원, 정서적 지원,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하였다[38]. 결국 사회적지지가 기업가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지지 가족, 동료, 학교 네트워크 유형으로 연구되어 왔다[12]. Turker & Sonmez(2009)도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39]. Molino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창업의지간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고했다 [40]. Buang & Yusof(2006)는 부모들은 기업가적 경력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고 하였다[41]. Verheul et al.(2012)은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창업에 대한 선호도와 창업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Nanda & Sørensen(2010)은 창업 경력 선택에 동료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창업 경험이 있는 동료의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12]. 조한준 외(2020)는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16].

## 3. 성공 창업가의 롤모델

박새미(2008)는 롤모델의 개념을 본보기의 대상 인물이 본받고자 하는 인물과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롤모델의 영향력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수렴하는 사람에게 동기, 흥미, 가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43]. Gibson(2003)은 롤모델이 개인의 사회적 비교모델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환경과 경험을 롤모델과 비교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특정 진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44]. BarNir et al.(2011)은 롤모델 안에서 자신의 잠재적 미래나 미래에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45].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창업가의 존재는 잠재적 창업가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46].

육창환(2015)은 창업가의 환경 특성 요인으로 모델 역할의 영향력이 창업 의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7]. 이상화(2016)는 성공 롤모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진주형과 박병진(2014)은 가족과 지인의 롤모델은 심리적 변수들인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49], Garaika et al.(2019)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롤모델은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50].

#### 4. 멘토링

Day & Allen(2004)은 멘토는 멘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멘티의 경력 계획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인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51].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은 리더십 개발 및 경력의 기회를 촉진하는데 멘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52]. 이와 같은 멘토링은 창업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멘토링은 개인의 기업가정신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53]. Nabi et al.(2021)은 학생들의 창업가 경력개발을 위한 멘토링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멘토링 기능이 창업가적 역량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4]. 조한준 외(2020)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멘토링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유병준 외(2018)는 멘토 기능은 창업멘토링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5]. 방혜민과 전인오(2015)는 멘토의 역할은 초기 창업자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멘토의 역할이 창업의 진척율을 높이고, 자금유치를 진행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56].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가설 1;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직무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가족의 사회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동료의 사회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성공 창업가의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 멘토링은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5; 창업 멘토링은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6; 창업 멘토링은 성공창업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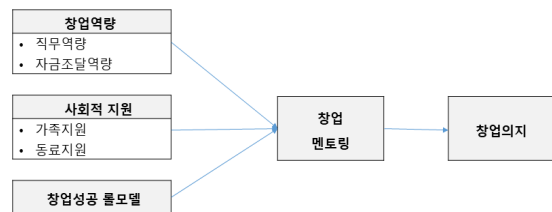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창업역량	직무역량	직장에서 경험한 직무관련 내용과 경험 기술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윤희현(2019)[36] 박성호(2017)[35] 한미경(2021)[37]
	자금조달역량	자금조달역량은 미래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역량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가족이 제공하는 용기와 격려 등으로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	김상수[21]
	동료지지	나의 선택과 일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한 정서적 지지	
창업성공 역할모델	창업을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인 사람	Kram(1983)[57] Burke(1984)[58]	
창업멘토링	창업의 경험, 창업의 문제해결에 등에 대한 도구적인 및 정서적인 지원과 상호교류	방혜민(2015)[56] 유병준외(2018)[55]	
창업의지	미래 창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	곽동신외(2020)[17] 조한준(2020)[16]	

####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3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29부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BK(Baron & Kenny)[59]와 Sobel test를 검증하였다.

### IV. 결과

#### 1. 표본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03	45.0
	남성	126	55.0
연령	30대	72	31.4
	40대	77	33.6
	50대 이상	80	34.9
교육 수준	고등학교	16	7.0
	전문대학	20	8.7
	학사	87	38.0
	석사이상	106	46.3
직업	전문직	56	24.5
	사무직	74	32.3
	서비스직	32	14.0
	기타	67	29.3
소득	250만원 이하	31	13.5
	256-350만원 이하	68	29.7
	351-500만원 이하	57	24.9
	501만원 이상	73	31.9
업무 경력	10년	99	43.2
	11-20년	78	34.1
	21년 이상	52	22.7

#### 2.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

인회전방식으로는 베리맥스(Varimax Rotation) 방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4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7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의 누적 분산은 75.22%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창업의지2	.879	.069	.143	.012	.223	.072	.053
창업의지1	.876	.090	.174	.057	.085	.146	.159
창업의지5	.828	.087	.178	.036	.081	.119	.231
창업의지4	.824	.077	.246	.112	.249	.148	.057
창업의지3	.780	.103	.241	.055	.306	.205	-.064
친구1	.105	.860	.035	.193	.029	.010	.064
친구3	.112	.854	.098	.191	.059	.013	.005
친구2	.116	.828	.141	.271	.077	.029	.009
친구4	.007	.737	.086	.149	.118	.147	-.005
업무경험3	.182	.084	.830	.084	.147	.105	-.009
업무경험2	.193	.174	.720	.092	.275	-.098	.135
업무경험1	.271	.028	.719	.096	.269	.181	.032
업무경험4	.215	.129	.714	.003	.036	.225	-.162
가족2	.053	.231	.069	.880	.110	.046	.057
가족1	.051	.281	.098	.864	.010	.111	.049
가족3	.067	.324	.063	.835	.057	.106	.041
자금준비3	.199	.079	.273	.086	.775	.077	.094
자금준비1	.254	.168	.166	-.003	.718	.112	-.023
자금준비2	.265	.117	.293	.094	.596	.149	-.088
롤모델1	.245	.144	.109	.068	.010	.785	.146
롤모델3	.279	-.034	.165	.245	.293	.511	.037
롤모델2	.158	.116	.257	.118	.233	.491	.161
멘토링3	.172	.039	-.144	.061	-.044	.276	.800
멘토링2	.253	.029	.406	.153	.342	-.093	.547
멘토링1	.235	.131	.043	.181	.292	.093	.476
고유값	4.471	3.112	2.971	2.555	2.292	1.501	1.151
분산	18.62	12.96	12.38	10.64	9.55	6.25	4.79
누적분산	18.62	31.59	43.97	54.6	64.17	70.42	75.22
신뢰도	.92	.84	.79	.75	.81	.77	.72

#### 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 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1단계인 창업 멘토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직업과 소득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직업은 창업 멘토링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무역량, 자금조달 역량, 동료지지, 창업성공 역할모델이 창업 멘토링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직업과 소득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소득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하였다. 직무역량, 자금조달 역량, 창업성공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자금조달 역량, 창업성공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창업 멘토링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창업 멘토링에 미치는 영향력

구분	1단계		2단계	
	b	β	b	β
(상수)	13.728		-1.650	
남성	.252	.041	-.491	-.080
연령	-.027	-.076	-.013	-.036
학력	.296	.086	.055	.016
전문직	.962	.138	.141	.020
사무직	-1.931***	-.297	-.703*	-.108
서비스직	-.624	-.073	-.607	-.071
업무 경력	.121	.007	1.209	.075
소득	-.000*	-.150	-.000	-.081
직무역량			.287***	.286
자금조달역량			.326***	.263
가족지지			.041	.031
동료지지			.225**	.185
창업성공 롤모델			.405***	.270
F	4.603***		16.288***	
R <sup>2</sup>	.152		.514	
Adjusted R <sup>2</sup>	.119		.483	
R <sup>2</sup> 의 변화량	.152***		.362***	

\*p<.05, \*\*p<.01, \*\*\*p<.001, 기준변수 : 성별(여성), 직원(기타)

표 5.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과 창업 멘토링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17.662		2.653		3.284	
남성	2.014**	.204	.630	.064	.795	.080
연령	-.017	-.029	-.043	-.073	-.038	-.065
학력	.547	.099	.152	.027	.131	.024
전문직	1.121	.100	.215	.019	.165	.015
사무직	-2.402**	-.227	-.852	-.081	-.649	-.061
서비스직	-.054	-.004	.041	.003	.235	.017
업무경력	-2.522	-.097	-.325	-.013	-.724	-.028
소득	-.000*	-.134	-.000*	-.100	-.000	-.083
직무역량			.179*	.119	.130	.080
자금조달역량			.838***	.418	.733***	.366
가족지지			-.112	-.051	-.127	-.058
동료지지			.050	.025	-.028	-.014
창업성공 롤모델			.704***	.289	.563**	.232
멘토링					.340*	.211
F	4.603***		16.288***		16.008***	
R <sup>2</sup>	.152		.514		.530	
Adjusted R <sup>2</sup>	.119		.483		.497	
R <sup>2</sup> 의 변화량	.152***		.362***		.015*	

\*p<.05, \*\*p<.01, \*\*\*p<.001, 기준변수 : 성별(여성), 직원(기타)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분석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자금조달 역량과 창업성공 롤모델은 1단계, 2단계 검증과정에서 1단계 종속변수(창업멘토링)와 2단계 종속변수(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모형(창업의지)에서 매개변수인 멘토링과 같이 투입된 경우에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분석에서 자금조달 역량과 창업성공 롤모델의 비표준화회귀계수 값이 2단계 값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자금조달 역량과 창업성공 롤모델은 창업 멘토링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역량과 창업성공 롤모델은 창업 멘토링을 부분 매개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으로 창업 멘토링을 매개로 하여 동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역량은 1단계, 2단계 검증과정에서 1단계 종속변수(창업멘토링)와 2단계 종속변수(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모형(창업의지)에서 매개변수인 멘토링과 같이 투입된 경우에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분석에서 직무역량의 비표준화회귀계수 값이 2단계 값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직무역량은 창업 멘토링을 매개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력 R<sup>2</sup>는 .152로 나타났으며, 모형 2의 설명력 R<sup>2</sup>는 .514로 나타나 모형1보다 설명력이 36.2%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모형3의 설명력 R<sup>2</sup>는 .530로 나타나 모형2의 R<sup>2</sup> 설명력보다 1.5%(p<.05) 증가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 멘토링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회귀분석 1단계 ~ 3단계의 결과 R<sup>2</sup>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혁신성과 창업멘토링의 롤모델과 멘토는 창업의지와 영향력에서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Sobel Test는 Z값이 ±1.96을 기반으로 ±1.96보다 크거나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며, 매개효과는 통계적 95% 신뢰수준을 기반으로 유의성을 판단한다. 창업 멘토링에 대한 Sobel Test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역량 → 창업 멘토링 → 창업의지, 자금조달역량 → 창업 멘토링 → 창업의지, 창업성공 롤모델 → 창업 멘토링 → 창업의지의 매개변수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6. 창업 멘토링의 Sobel Test 결과

연구 가설	Sobel Test	채택여부
직무역량 → 창업멘토링 → 창업의지	2.27120482	채택
자금조달역량 → 창업 멘토링 → 창업의지	2.22608587	채택
가족지지 → 창업멘토링 → 창업의지	0.58683964	기각
동료지지 → 창업멘토링 → 창업의지	1.86756513	기각
창업성공 롤모델 → 창업멘토링 → 창업의지	2.28773595	채택

## V. 결론

본 연구는 성인의 경력 선택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창업역량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더불어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창업역량 중 직무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창업자에게 다양한 직무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창업의 형태는 소규모 조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영자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잠재적 창업가가 개인적인 자금만으로 창업을 시작하기에는 창업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창업행동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등은 창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문턱이 높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통해서 창업자금을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기각되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지원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선행연구[8][10][12]와 차별된 결과이다.

셋째, 성공창업가의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성공창업가의 롤모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의 성공의 롤모델을 통한 대리 학습이 가능한 사례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리학습은 사회화 영향력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 멘토링은 창업역량의 직무역량과 자금조달역량, 창업성공 롤모델과 창업의지와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인 창업 컨설팅은 창업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창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비 창업자들이 전문적인 창업 멘토의 기회 등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창업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의 직무역량과 창업자금 역량이 높은 예비 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 멘토링을 연결하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의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조절변수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멘토링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M. Kenney and W. Goe, "The role of social embeddedness in professorial entrepreneurship: a comparison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at UC Berkeley and Stanford," *Res. Policy*, Vol.335, pp.691-707, 2004.
- [2] V. Tartari, M. Perkmann, and A. Salter, "In good company: the influence of peers on industry engagement by academic scientists," *Res. Policy*, Vol.43 No.7, pp.1189-1203, 2014.
- [3] J., Podolny, "Networks as the pipes and prisms of the market," *Am. J. Sociol*, Vol.1071, pp.33-60, 2001.
- [4] M. Granovetter,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 J. Sociol*, Vol.91, No.3, pp.481-510, 1985.
- [5] J.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 J. Sociol*, pp.95-120, 1988.
- [6] A. J. Kacperczyk, "Social influence and entrepreneurship: the effect of university peers on entrepreneurial entry," *Organ. Sci.* Vol.24, No.3, pp.664-683, 2013.
- [7] P. Azoulay, C. Liu, and T. Stuart, "Social influence given partially deliberate matching: career imprints in the creation of academic entrepreneurs," *MITSloan Work. Pap.*, 2014.
- [8] J. Sørensen, "Closure and exposure: mechanism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employment," *Res. Sociol. Organ.* Vol.25, pp.83-124, 2007.
- [9] J. Greenberg, "What You value or what you know? Which mechanism explain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business ownership expectations," *Adolescent Experiences and Adult Work Outcomes: Connections and Cause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Vol.25, pp.85-126, 2014.
- [10] T. Stuart and W. Ding, "When do scientists become entrepreneurs? The socialstructural antecedents of commercial activity in the academic life sciences," *Am. J. Sociol*, Vol.112, pp.97-144, 2006.
- [11] M. Roach and H. Sauermaun, "Founder or joiner? The role of preferences and context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rests," *Manage. Sci.*, Vol.619, pp.2160-2184, 2015.
- [12] R. Nanda and J. Sørensen, "Workplace peers and entrepreneurship," *Manage. Sci.* Vol.56, No.7, pp.1116-1126, 2010.
- [13] L. A. Renzulli, H. Aldrich, and J. Moody, "Family matters: gender, networks, and entrepreneurial outcomes," *Social Forces*, Vol.79, No.2, pp.523-546, 2000.
- [14] J. A. Starr and N. Fondas, "A model of entrepreneurial socialization and organization form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7, No.1, pp.67-77, 1992.
- [15] 박수용, 서상혁, 서준혁, 오재우, 이동형, "창업 멘토의 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요인간 구조분석,"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pp.394-415, 2013.
- [16] 조한준, 최대수, 성창수,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Vol.152, pp.81-96, 2020.
- [17] 곽동신, 정철호, "멘토 역량 및 멘토링 기능이 다차원 신뢰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 지*, Vol.15, pp.119-137, 2020.
- [18] L. M. Spencer and S. Spencer, *Competence at Work: Model for Superior Performance*, Canada: John Wiley and Son Inc, 1993.
- [19] M. Armstrong, *A Handbook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Practices: 10th Ed.* London and Philadelphia: Kogan Page, 2006.
- [20] J. R. Baum and E. A. Locke,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traits, skill, and motivation



- to subsequent venture grow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9, pp.587-598, 2004.
- [21] 김상수,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에게 사회적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22] 김대업, 성장수, “잠재적 창업가의 예비 창업행동과 사회적 책임의식 간의 관계: 마이스터 고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Vol.351, pp.25-46, 2013.
- [23] B. Jovanovic,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Vol.3, pp.649-670, 1982.
- [24] Y. Georgellis and H. J. Wall, “Gender differences in self-employment,”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193, pp.321-342, 2005.
- [25] M. Poschke, “Who becomes an entrepreneur? Labor market prospects and occupational choice,”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373, pp.693-710, 2013.
- [26] M. Koller, “Risk as a determinant of trust,”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94, pp.265-276, 1988.
- [27] 선량,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와 실패부담감이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28] 신향숙,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29] H. Kaur and A. Bain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ntrepreneur competency,”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Vol.211, pp.31-33, 2013
- [30] T. W. Y. Man, T. Lau, and K. F. Cha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72, pp.123-142, 2002.
- [31] 이혜영, 김진수, “초기 및 후기 기술창업기업 창업가의 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Vol.134, pp.99-116, 2018.
- [32] 남영휘, 안시연, 김상덕, “소상공인 경영성과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유통연구*, Vol.262, pp.25-51, 2021.
- [33] 이상백, *벤처기업의 창업자특성과 기업역량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전략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34] 남시태, *중소기업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 준비정도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35] 박성호, *창업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경제적 실패 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지원제도의 조절변수와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36] 윤희현, *창업가의 창업 준비특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의 매개역할과 창업교육전문성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37] 한미경,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38] R. J. R. Levesqu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Edited*, Indiana University, USA: Springer, 2014.
- [39] D. Turker and S. Sonmez Selçuk,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332, pp.142-159, 2009.
- [40] M. V. Molino, Dolce, C. G. Cortese, and C. Ghislieri,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as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Gender Differences in Italy,” *PLoS ONE*, Vol.13, No.6, pp.1-19, 2018.
- [41] N. A. Buang and Y. M. Yusof, “Motivating Factors That Influence Class F Contractors to Become Entrepreneurs,” *Jurnal Pendidikan*, Vol.31, pp.107-121, 2006.
- [42] I. Verheul, R. Thurik, I. Grilo, and P. Van der Zwan, “Explaining preferences and actual involvement in self-employment: Gender and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332, pp.325-341,

2012.

[43] 박새미, *청소년의 역할모델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4] C. Gibson, "Cultures at work: why 'culture' matters in research on the 'cultural' industries,"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Vol.42, pp.201-215, 2003.

[45] A. BarNir, W. E. Watson, and H. M. Hutchins,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412, pp.270-297, 2011.

[46] 정연수, 조성의,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창업학회지*, Vol.81, pp.57-73, 2013.

[47] 육창환,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48] 이상화, *창업가정신, 창업역량 및 창업가특성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9] 진주형, 박병진,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Vol.364, pp.101-123, 2014.

[50] G. Garaika, H. M. Margahana, and S. T. Negara, "Self efficacy, self personality and self confid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tudy on young enterprise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Vol.221, pp.1-12, 2019.

[51] R. Day and T. D. Alle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égé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41, pp.72-91, 2004.

[52] R. K. Srivastava, K. Greff, and J. Schmidhuber, "Training very deep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28, 2015.

[53] L. P. Kyrgidou and E. Petridou, "Developing

women entrepreneur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through e-mentoring support,"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20, No.3, pp.548-566, 2013.

[54] G., Nabi, A. Walmsley, and I. Akhtar, "Mentoring functions and entrepreneur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 of universit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466, pp.1159-1174, 2021.

[55] 유병준, 전성민, 석민성, "멘토역량과 멘토링기능이 창업멘토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창업가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Vol.136, pp.15-25, 2018.

[56] 방혜민, 전인오, "멘토의 역량과 멘토링 기능이 창업의 초기성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5, pp.444-454, 2015.

[57] K. E. Kram,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264, pp.608-625, 1983.

[58] R. J. Burke, "Mentors in organizations," *Group & Organization Studies*, Vol.93, pp.353-372, 1984.

[59]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2, 1986.

저 자 소 개

한 미 경(Mie Kyoung Hahn)

정회원



- 200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경영학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22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경험자원, 창업의지, 멘토링, 창업멘토링, 창업역량